

새누리 '수도권 참사'... 122석중 35석 그쳐

공천 갈등에 지지층 이탈... 17대 탄핵 역풍때보다 적어

더민주 82곳 당선... '투표로 단일화 해달라' 전략 효과

4·13 총선의 전체 판도를 좌우한 것은 전체 253개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걸린 수도권이었다.

14일 오전 마친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서울 49개 선거구 가운데 12개, 경기 60개 선거구 가운데 19개, 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4개만 건졌다. 수도권 122석의 28.7%인 35석만 얻은 것이다.

이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을 뒤이은 보수 정당의 계보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승률)으로 평가된다. 이전 수도권 최악의 성적은 지난 2004년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 때로 당시 한나라당은 109석의 30.3%인 33석을 얻었다.

수도권 의석수 대비 승률을 따지면 1988년 13대 총선 때 민주당은 41.6%(77곳 중 32곳), 14대 총선 때 민주당은 47.6%(82곳 중 39곳)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대대적인 몰락이 공천을 통해 전체 96석 가운데 54석(56.3%)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 때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97석 가운데 40석(41.2%)을 차지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더욱 몰락했다. 정권을 탈환한 직후인 2008년 치른 18대 총선에서 111석 가운데 81석(73.0%)을 확보,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112석 가운데 43석(38.4%)으로 다시 쇠락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서울의 경우 한강 이북에선 도봉을(김선동)·강북갑(정양석)·중성동을(이상욱) 등 3곳만 건졌다. 이마저 야당의 분열에 의해 두 야당 후보가 표를 20~30%대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강 이남에서도 '여당 불패 신화'를 보여왔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가운데 강남을과 송파을을 더민주에 내줬다. 경기는 강원·충북·충남과 인접한 외곽 지역만 간신히 건진 채 서울 주변 지역은 대부분 더민주에 무릎을 꿇었다. 격전지로 꼽힌 '용·수(용인·수원) 벨트' 가운데 수원 5개 선거구는 전패했다.

반면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122곳 가운데 82곳(67.2%)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49곳 가운데 35곳(71.4%)에서 당선되는 대승을 거뒀다.

경기는 60곳 가운데 40곳(66.7%)을 이

겼다. 용·수 벨트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에 '전당 밀 분당'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인 성남 분당갑(김병관)·을(김병욱)에서 의석을 차지했다. 광주을(임종성), 파주을(박성) 등에서도 새누리당 의석을 빼앗겼다.

인천의 경우 13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이겨, 19대 총선(12개 선거구) 때 새누리당과 절반인 6개씩 나눠 가졌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수도권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천 갈등'으로 인해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수도권 참패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더민주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악수(惡手)'와 유권자들에게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투표로 단일화를 이뤄달라고 호소한 선거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장, 어느 당 누가?

더민주·새누리 제 1당 신경전... 탈당파 복당이 변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한 석 차이로 원내 1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이자 '여의도 권력'의 최고봉으로,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임기는 국회법(제9조)상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씩 맡는다.

의장은 다수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확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는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당 자리를 더민주에 내줘야할 처지다.

하지만, 진여 성향 무소속 당선인들이 복당할 경우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무소속으로 당선된 안상수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총선에서 원내 1당의 성적표를 받은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박대통령, 집권 후반 국정 '험난'

노동개혁법 등 野 협조 없이 불가능... 국민의당 역할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과반 의석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 후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내세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가도도 빨갛아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제 청와대가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청와대가 야당과 대화를 늘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조

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사실상 범안 통과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총격에 휩싸였지만 최대한 빨리 추스르면서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분위기가.

박 대통령의 반전 카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상상력이 가동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개헌론도 상상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녹색바람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민의당 마포구 당사에서 선거상황판에 당선된 후보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연형뉴스

광주, 국민의당 득표율 더민주 두배

53.34% 차지... 전남에서도 47.73% 기록

4·13 총선에서 '녹색 돌풍'이 불어닥친 광주에서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50%를 넘었다. 전남에서도 득표율 50% 가까운 성과를 거뒀으며, 텃밭으로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두 배 앞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광주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은 53.34%를 기록했다. 동구가 55.61%로 가장 높았고 ▲북구 54.97% ▲남구 54.58% ▲서구 53.3% 순이었다. 막판까지 더민주와 접전을 보인 광산구의 득표율이 49.81%(더민주 30.99%)로 가장 낮았다.

더민주의 득표율은 국민의당의 절반 수

준인 28.59%에 그쳤다.

국민의당 광주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26.74%)의 두배를 기록했고, 더민주는 전국 득표율(25.5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국민의당에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국민의당은 전남에서도 47.73%의 득표율을 보였다. 더민주는 30.15%로 광주보다는 다소 높았다. 국민의당은 윤영일 후보의 지역구인 ▲해남(59.56%) ▲완도(45.46%) ▲진도(53.95%)가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았다.

더민주의 ▲완도 38.15% ▲고흥 37.

86% ▲담양 35.64% ▲광양 34.02% ▲나주 32% ▲화순 30.98%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광주에서 득표율 2.86%에 그쳤지만, 전남에서는 두배인 5.65%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주영순 후보의 고향인 신안인 11.31%로 가장 높았고 이정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순천도 9.02%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민주를 탈당한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입당해 원내정당이 된 기독교당은 광주에서 1.89%, 전남에서 2.97%를 기록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이 7.53%, 신안이 8.53%로 지지율이 높았다.

역시 더민주를 탈당한 신기남(서울 강서구) 의원이 입당한 민주당은 광주 1.



51%, 전남 2.37% 득표율에 머물렀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광주에서 7.32%를 기록해 전국(7.23%)과 비슷했고 전남에서는 5.82%를 나타냈다. 민중연합당은 광주에서 2.66%, 전남에서 2.51%를 기록해 전국(0.61%)보다 모두 높았다.

원의 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등은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광주 전패... 이용섭 사실상 정계 은퇴

정의당·민중연합당 성명 '더 분발하겠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14일 "현실 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단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더민주의 제1당이 됐지만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더민주의 광주선거 전패, 저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단장은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장의 이날 발언은 더민주 광주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한 석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의당에 보내 주신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흠여진 진보정치세력의 하나로 모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개발 등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냈던 민중연합당 광주시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창당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시당은 "앞으로 진보대연합 실현에도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직원채용

사계절 푸르른 양산디 친환경 나비의 고택- 함평다이너스티CC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인원	부서별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팀 (총무, 회계)	2명	- 구매, 총무 업무 - 매출, 손익분석 - 문서관리 및 전표 등 업무보조	
경영지원팀 (프론트)	2명	- 안내데스크 및 고객응대 - 프론트 정산업무	- 고졸이상 학력 - 신입 및 경력사원
코스관리팀	2명	- 골프장 내 코스 및 잔디관리, 조경관리 - 잔디예초 및 일반관리	- 동종업계 근무 경력우대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
식음료팀 (레스토랑 근무자)	4명	- 식음료팀 전반적인 업무 - 레스토랑 내 홀관리/홀서빙 업무	
시설팀 (라카 근무자) (남자)	1명	- 골프장 라카관리 업무	

급여/근로형태: - 탄력적 근무제(주1회 휴무) - 연봉제(퇴직금 별도) - 급여(면접후 결정) - 신입연봉 2200이상 수준(경력직 면접 협의)

복지후생: - 직원 숙소 제공 - 식사제공, 제수장 지급, 경조사 지원 -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 4대보험(국민, 고용, 산재, 건강)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지원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 - 이메일 접수(ckjoneil@nate.com) - 문의전화: 061-320-7717 (담당자: 최광진)

아이엘리시아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특별 메뉴

종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